

팀은 꼴찌 허덕이는데 1군 코치 한규식-용덕한, 원정지서 밤샘 술판·폭행 체포

사고뭉치 NC, 왜 이러나



NC 다이노스에서 또 추문이 터졌다. 지난해 여름 일부 선수들의 술자리 파문으로 이어 원정 3연전을 위해 이동한 대구의 한 주점에서 3일 한규식 코치가 용덕한 코치를 음주 도중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NC는 한 코치와 계약을 해지하고, 용 코치는 엔트리에서 말소했으나 야구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되풀이되는 추태로 인해 창원NC파크로 팬들의 발길이 이어질지도 우려스럽다.

스포츠동아DB

작년엔 선수들이 술자리 파문 이번엔 코치들 술판 폭행 추태 NC, 때린 한코치와 계약 해지 용덕한 코치는 업무에서 배제



반들이 절실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또 물의를 빚었다. NC 다이노스에서 1군 코치 2명의 음주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3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NC 코치 2명은 이날 오전 3~4시경 대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다툼을 벌였다. 한규식 수비코치(46)가 후배 용덕한 배터리코치(41)를 때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용 코치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NC 구단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센터에 보고했다”며 “추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C 구단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소속 코치의



한규식 수비코치



용덕한 배터리코치

사회적 물의에 대해 야구팬과 관계자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또 최근 구단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보인 프로스포츠 구

단답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 코치와 계약은 곧장 해지했고, 용 코치는 일단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KBO도 조간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NC로선 또 한번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NC는 이미 지난해 7월 선수들의 술자리 파문으로 KBO리그에 평지풍파를 몰고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등 1군 주축 선수 4명이 선수단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징계계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코치들이 또 문제

를 일으켰다. 3~5일 삼성 라이온즈와 3연전을 치르는 원정지인 대구에서 동이 트도록 술을 마시다가 폭행 사건이라는 추태를 부렸다. 팀이 2일까지 8승18패로 최하위에 그치고 있는 터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 또한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해 술자리 파문으로 징계를 받은 4명 중 박석민을 제외한 3명의 복귀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KBO(72경기)와 구단(25경기)의 출전정지 징계를 모두 소화한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은 4일부터 1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치들이 야심찬 시각에 음주폭행사건을 일으킴에 따라 해당 선수들의 복귀에도 적잖은 부담이 따르게 됐다.

NC는 창단 이후 술한 사건사고를 일으키며 KBO리그는 물론 국내야구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곤 했다. 특히 지난해 7월 NC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리그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비화됐다. 사장, 단장 등 NC 구단 수뇌부 역시 경질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주축급씨가 채 지워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코치들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불행사나운 모습을 또 연출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1회 전국여자정구대회 현장을 전한 동아일보 1923년 7월 1일자 신문. 당시 2만여 명이 운집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던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담겼다. 국내 최초의 단일 종목 대회였던 동아정구대회(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는 올해로 100회를 맞는다.

제100회 동아일보기 정구대회 6일 문경서 화려한 ‘백세잔치’

초·중·고·대학·일반부 100개 팀 1000여명 참가 15일까지 열전…‘백세의 왕’ 누가될지 큰 관심



‘100번째 정구열전!’ 소프트테니스(정구)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정구)대회’가 올해로 창설 100회를 맞았다.

이 대회는 1923년 제1회 전조선여자정구대회로 서막을 열었다. 국내 최초의 여성 스포츠대회다. 일제강점기에 소프트테니스 종주국 일본을 이겨 우리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기 위해 창설됐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전체 종목 중 가장 오래된 대회다. 일본에서도 100회를 기록한 대회는 없다.

제100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는 6일부터 15일까지 경북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초·중·고는 물론 대학 및 일반부까지 100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한다.

6일 오후 5시20분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열리는 개회식에선 퓨전댄스, 치어리딩, 초청가수의 공연 등 화려한 식전행사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대회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으며, 대회 유공자에 대한 공로상 시상도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대회가 펼쳐질 7, 8일에는 중·고·일반부 단체전, 9일에는 중·고·일반부 혼합복식 경기가 열린다. 10일에는 중·고·일반부 남자단체 결승과 혼합복식 결승, 개인복식이 진행된다. 특히 10일 열리는 남자단체 결승과 혼합복식 결승은 오후 2시10분부터 4시10분까지 채널 A에서 중계할 예정이다.

이어 11, 12일에는 고등부와 일반부(개인복식 결승, 개인단식 결승 등) 경기가, 13~15일에는 초등부 및 대학부(단체전·개인전)가 이어진다.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100회 축제 분위기와 함께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 기간 : 5월 6~15일
- 장소 :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 종목 : 단체전 및 개인복식, 개인단식, 혼합복식
- 부문 : 남녀 초·중·고·대학·일반부
- 문의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02-420-4057)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주관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경상북도소프트테니스협회, 문경시소프트테니스협회
후원 : 문경시, 문경시체육회

“보물들이야, 푸른나무처럼 자라렴!” 어린이날인 5월5일(목)자 신문은 쉽니다. sportsdonga.com뉴스서비스는 계속됩니다.



롯데월드몰에 '손흥민 한국관광' 영상 떴다

손흥민의 소속팀 EPL 토트넘 홋스퍼 홈구장에 손흥민이 등장하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이 떴다. 이달 말까지 띄우는 경기장 LED 패널에는 '방한여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Travel to Korea Begins Again) 등의 홍보 메시지가 송출된다.



그룹 아이온

가요계는 봄 5월 아이돌 컴백 '가요대전'

따뜻한 봄, 가요계는 여름보다 더 뜨겁다. 글로벌 스타 싸이를 시작으로 아이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등 '4세대 대표 아이돌'까지 컴백해 경쟁을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 주문량만 100만 장을 기록하며 '신용 일리언스'의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 관련기사 11면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부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부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